

공동체은행 빈고

Q. 대구의 공유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유 사업의 한계는 뚜렷. 공동체성?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갈이 있을 것 같다.

Q. 선언문이 놀라웠다. 과정은?

초반에 빈집이 만들어졌을 때는 말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지음이 쓰긴 다 쓰고 총회에서 박수로 넘어갔다. 빈집이 10년하고 10개월이 됐고 빈고가 8년쯤 됐다. 그리고 6년 정도 있다가 선언문이 만들어졌다. 처음부터 하려고 계획이 있던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 정리가 됐다. 빈마을 금고 취지문이라는 게 아래에 하나 더 있고 빈고를 처음 만들 때 빈집의 내용을 정리해서 한 것.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선언문에 나온 빈고의 역할들이 운영활동가나 출자활동가 연대활동가들이 돈을 가져가서 활동하고 이익을 빈고에 가져온다.

연대에 지구분담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기존의 은행의 시스템에 반대하는 것. 이자라는 개념은 수익이 되는데 그 자체가 애초에 우리 돈이 아니다. 애초에 빈고의 돈이 될 게 아니다. 자본 시스템에서는 우리에게 이자라고 해서 돈을 주는데 애초에 우리 돈이 아니니?? 우리는 다른 곳에 돈의 형태이지만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선언문에 드러나는 선명성이 느슨하긴 한 것 같다.

반자본주의적이라고 하고 싶지만 체제전복을 하면 좋는데 그런 것들을 안에 담아두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이 이용을 삶에서 연계점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 지구분담금도 연대가 큰돈이 단체별로는 아니다. 10만원이 가는 식인데 그 단체와 그 이후에 목표나 상은 그 단체와 끈끈하게 가고 빈고도 알리고 확장되어가는 것이면 좋겠다는 상이지만, 조직을 만들고 확장해나가는 것은 미친 듯이 해야 가능하다. 우리는 하고 오면 이후에 와도 좋고. 대체로 빈고에서 돈이 가고 돌아오진 않는다.

하지만 이 돈을 빈고가 가지고 있지만 이자의 수익의 어떤 부분을 총회에서 결정하지만 어딘가로 갈 때 조합원들이 의견을 내면 거의 간다. 가장 많이 가는 건 노동현장. 당장 연대 활동이 필요한 곳에 간다. 공동체 기금이 있다. 수익의 일부가 공동체 기금으로 편성되는데 빈고에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레드박스도 빈고 공동체 중 하나이다. 자는 곳도 있고 살림을 하는 공동체. 책방이나 공간을 같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공동체의 기본적인 것은 그 사람들끼리만 사는 곳은 아니다. 느슨하지만 누구나 오고 환대할 수 있는 공간. 기본적으로 빈고는 3명이서 집을 만들겠다 하면 공동체라고 가지만 3명만 살고 다른 사람들이 못 온다는 것은 공동체라고 보진 않고, 그들끼리의 쉼어하우스 같은 곳일테니?? 환대하고 열려있는 것들도 각각의 상이 다 다르다. 어쩌다 하루 와서 잘 수도 있고 1년 내내 누군가 손님으로 머무는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고.

공동체 마다도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파티를 한다면 공동체 기금을 쓸 수 있다. 이사를 한다거나 기금 중에 일정 부분을 사용한다. 쌓여있는 돈이 있는데 빈고에서 쓰는 용어랑 빈 이라고도 하고 이자라고 안하고 이용수익이나 그렇게 이야기 한다. 러프하게 말할 때는 이자라는 단어를 쓴다.

지구분담금의 경우는 연대활동에 쓰는데, 처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200만원 가까

이 썼다. 7~8년에 걸쳐 조금씩 모인 돈이 그 정도이다. 남아있는 것들은 300정도 남았다.

Q.

공유지, 커먼즈라는 이야기는 근래에 많이 쓰이는 것 같다.

공유지의 관점에서는 공유지를 관리하는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우리 네트워크를 볼 수있다. 공유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산이 필요하고, 자산을 운영하는 방식이 공동체를 배반할 때가 많다. 그런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금융 공동체인 것. 그래서 공유지라고 하면 빙고의 공동체인 것. 그래서 오늘 그냥 와서 쓸 수 있는 것이다. 레드박스에서 일하는 분들도 출자를 해서 같이 돈을 모았고 저희가 이 공간자체를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활동을 같이 하는 공동체이다. 이런 공유지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들이 같이 만드는 금융 협동조합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시작이 된 것은 주거 공동체에서. 빈집이 처음 만들었던 여러 사람들이 공유한 생각은 '돈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한 반개', '국가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러다 보니 공동체 자체가 독특한 재정정책을 갖고 있었고 확장되다 보니까 은행의 형태로 자산을 관리하자고 된 것.

→ 돈이 돈을 버는 방식도 러프하게 이야기해서 자본의 속성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 돈을 버는 방식이 오일머니, 전쟁머니 같이 망가뜨리는 방식. 빙고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다른 방식. 우리도 출자활동을 할 때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이 빙고를 이용하면서 수익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들.

이건 좀 큰 이야기. 공동체를 하나 꾸린다고 생각하고 돈을 같이 모으고 공간을 마련해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실 처음 시작한 건 돈을 많이 출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공동체로 같이 있는 건데 돈을 많이 냈다 해서 더 많은 권한을 갖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 출자한 사람들이 같이 사는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보증금을 낼 때 같이 사는 건데 이자는 필요 없다. 특혜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 반대쪽에는 어쨌든 돈에 대한 수익은 생기는 거고 그걸 돈을 낸 사람이 갖지 않겠다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는 것이다. 그 혜택 자체를. 빌린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건데 그것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그 혜택은 내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출자한 사람이 포기한 자본 수익인데 그걸 내가 가질 필요는 없다. 나는 오히려 내는 게 더 떼떽하고 평등해지는 방식인 것 같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돈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발생하는 돈은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본의 속성. 서로 갖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만난 상황이 되면 이 돈은 어디로 가야 할거냐를 논의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힘들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에게 가겠지만 다 괜찮다 하면 그건 밖으로 가는 게 맞는 것. 돈이 돈을 불러 온 것은 뺏긴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은행은 예금하는 사람과 대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가고, 대출자는 되도록 진짜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받는다 하고 하면 실제로는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는 것. 은행에서 싸게 대출을 받아서 집에 투자하면 돈이 좀 남을 걸 노리고 래버리지, 이자를 바라는 사람들이 만드는 은행이 다 있는 것. 특정 은행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례들은 특수한 경우일 수 있다. 좋은 사람 관계에서 안짱도 돼, 너 가져 라고 하는 관계가 드물긴 하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분명 있고 이런 관계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본 것 같다. 그 시스템이 빙고다. 빙고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면서 이자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거고 이용하는 사

람은 이걸로 뭘 자기 집을 싸게 하겠다보다는 이런 공유지를 만들어서 넓혀가겠다 고 만드는 것. 이 곳에 올 수 있는 이들이 오는 거고 수익이 발생한 것은 노동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돈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은 공유하는 게 맞지 않냐. 여기서 돈이 모이는 것. 이게 논의 하다가 밖으로 가야겠다는 것. 출자자 이용자 외부로 쓰는 연대자 전체적인 운영에 참가하는 운영자 네 주체, 네 가지 활동을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빙고의 조합원이고 활동가이다.

조합원은 400명 정도 되고, 공유지 개념은 저희는 명확하다. 전체 자산은 5억 6천 정도 된다. 이 자산을 공유지로 봐야 한다. 커먼스이다. 공유지의 개수로 치면 열 몇 개가 되는 것 같고, 공동체, 공간과 관련은 없지만 놓여있는 3인 이상의 공동체가 열 몇 개가 된다. 다른 금융활동도 많이 있는데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라면 돈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지원을 받고 싶다는 느낌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돈을 계속 갖고 있거나 자본 시스템에 가만히 있으면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관계들로 모아자. 돈이 워낙 없으니?? 자본이라는 생각은 안한다. 자본이 되어서 돈을 벌거라고는 생각 안하지만 그런 화폐들을 긁어모아서 자본으로 만드는 게 은행의 시스템이다. 그 계좌들의 몇 만원씩이라도 전세계 사람들의 화폐를 자본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어떤 자본에 의존하고 종속되어있는 지를 잘 알고 여기서 갑자기 삶의 방향을 반자본주의로 바꿀 순 없겠지만 그렇게 가야 하는 건 맞는 거다.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것은 누군가 뺏기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게 아니라면 다른 방식을 운영을 해보자고 정리가 된 것.

처음에 집을 구할 때는 같이 전셋집을 구하면 각자 가진 돈을 모으고 쓰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월세보다 전세로 구하려 하고 돈을 빌려 이자를 싸게 빌리고 전셋집 구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살다보니 그런 방식에 자산을 좀 더 자본주의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것.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집을 마련하는 방식이 생각해보면 낫설다는 것.

시민자산화에 좋은 방법이라고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반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원래 옳지 않은 게 아니다 라는 큰 틀에서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큰 틀에서는 이 방향은 아니다 라는 합의가 필요. 시민이라는 말도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 돈이 있어야 자산을 만들텐데 그럼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게 시민자산화면 각자는 돈을 더 벌어야 될 거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든 국가로부터 요구를 하든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산 없이도 살만하고 그런 사회를 불러오면 좋을까 라는 것

자본이 무서운 게 자본이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내가 갖기 시작하면 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본의 흐름으로 움직이게 된다. 싫었던 것임에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 위험한 거라면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서 여기에 휘둘리지는 말자고 가야하는 것 아닌가.

공동체나 단체를 위해 모이면 자산을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종속된다. 외부의 압력보다는 내부에서 어려워서 공동체가 깨지는 게 대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빙고는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출자할 수 있는 만큼 출자하고 공동체의 필요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빙고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면 각자가 출자자이자 이용자로 동등하게 간다. 오

히려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장애가 안 되게 하는 역할을 빈고가 하는 것. 공동체가 그런 문제 때문에 만들어질 때나 깨질 때 어려운 건데 빈고는 지금까지 만든 공동체가 50여 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과정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은 없었던 것 같다.

기본 3명 이상의 공동체가 공간을 마련하려 한다거나 할 때 계획 자체를 공유하고 빈고의 운영은 공동체들 마다 공동체 활동가들이 있고 그들이 모여서 결정하게 된다. 그 중 한 사람이 제안자인 것. 계획을 같이 논의하고 큰 문제없다고 하면 이용을 하는 것. 이용 활동인 것. 그 부분에서 물론 사업이나 활동의 현실성은 고려 안할 수 없지만 같이 고민하는 것. 심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의견을 서로 이야기하지만 이용이 공동체로 이용될 경우에는 거의 승인돼서 진행된다. 개인 이용 같은 경우는 빈고가 공동체들의 네트워크지만 공동체에서 어떤 개인이 돈이 필요하다 하면 빈고가 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빈고에 제안해서 빈고는 공동체에 돈이 가고 개인에게 가는 신뢰가 있다. 거기에서의 중요한 신뢰관계라는 것 말고는 없다. 재무상황을 하나도 보지 않는다.

공동체 구성원에게 이 이용활동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통은 그냥 간다. 공동체의 공간 이용이 제일 비중이 크다. 공간 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유지를 만드는 것에 전체 공유재의 90%가 사용된다. 나머지 10%가 공동체의 기타 활동. 그런 활동에 사용되는 게 있고 공동체 구성원이 필요한 것들. 대체로 공동체가 제일 중요하다. 공동체의 판단과 활동이. 개인은 사실 되도록 어떤 공동체든 속하게 모여 있는 목적이 그러니까 유도를 하려고 하지만 정 그런 경우가 아니면 출자한 것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언어확됐을 때 드러나는 특성. 선명성 때문에 정확한 것을. 러프하게나마 반자본주의가 드러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런 걸 실제로 고민하진 않는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구성원들은 구성원으로써 활동하는 것. 빈고를 이용하면서 나는 반자본주의적으로 활동하려는 건 아니지만 활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실험은 천주교를 기반으로 초기 만들어졌다. 개인에게 큰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자본주의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큰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실패하면 공동체가 늘 성공하진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긴 마련인데 빈고는 그런 면에서 크게 결단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 공동체 활동이든 조합활동이든 희생하고 계속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되고 실패하면 큰 타격이 개인에게 있는 방식으로 가진 않고 싶다. 그래서 느슨한 편이다. 빈고는 출자라고 하지만 입출이 자유로운 출자. 은행같은 느낌도 있는 게 여유가 있을 땐 나뉘다가 필요하면 가져가는 방식이 자연스럽다. 회수가 어느 정도 자유롭다보니 출자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본 수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손해가 되진 않는다. 그렇게는 안하려고 한다.

일정정도 그 사람에 배당. 출자 이용 연대에 각자 배당을 한다. 잠정적으로. 잠정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사람이 크게 어려워지거나 더 이상 동의하지 않아서 탈퇴를 할때는 손해는 안보게 해준다는 것. 날 것의 것들로 말하자면 출자금의 회수하고 빈고 조합원에서 탈퇴하겠다 하면 이자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 배당을 하는데, 배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있을 땐 공유지에 묶여 있다. 탈퇴하면 동의하지 않는 거니까 다 돌려준다. 420명 정도니까 30명 정도 있다.

Q. 공유지에 그 곳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10명이 동시에 찾아가지는 않으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잘 관리한다. 은행과 유사하게 원칙은 반대지만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건 유사하게 간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운영을 한다.

Q. 잉여를 수익화하는 방식에 익숙한데, 수익에 투자하는 방식이. 그걸 사회에 씨앗으로 퍼뜨리는 건가?

용어와 개념. 애초에 잉여라고 했을 때의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니까 이 것이 생겨났던 곳으로 가야한다.

Q. 잉여를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풍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는데도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라는 생각.

그런 것.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런 부분을 공유지에 놔두고 유보를 한다. 공유지에 놔두거나 일부를 외부로 돌리면서 균형관계를 갖고 있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본은 모여 있으면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이들 중 센 사람이 많이 가져간다면 제일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게 우리의 역할.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쉽다. 기부라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는 좀 다르다. 자본가와 상대해서 우리가 만든 공유자본이지만 이 자본이 다른 자본과 상대해서 얻어올 부분은 뺏어오는게 우리의 잉여라면 뒀다가 필요한 곳에 가게 한다는 느낌.

Q. 개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공동체의 비율이 90%다.

주거공동체가 많다. 보증금. 그 외에는 공동체에서의 경조사나 잉여가 소비되는 방식. 묶여있는 건 보증금 때문.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공간을 갖는 경우는 대체로. 돈은 진짜 어려워서 빌리는 걸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산은 땅이나 주택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것.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하는 건데. 개인이 돈을 더 원하는 것은 그게 그 사람을 돕는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다. 주로 3인 이상의 공동체, 열려있는 공동체, 그거 자체로는 공동체의 기준은 되게 기본적인 편이다.

Q. 대구의 '디딤' 은행은 풀어나가는 방식이 좀 다르다. 개인에게 급전을 빌려주거나 그 과정에서 케어를 하려고 하는 방식.

저희도 그렇게 하지만 어차피 개인의 재정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는 것. 잘 되면 이 사람이 생활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개인이 더 많은 수익을 받고 자산관리를 잘 하고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게 우리의 방향인가? 잘되면 그렇게 가기가 쉽고 안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지원과 금융은 좀 다른 것 아닌가. 금융의 형태로 지원하는 건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좀 더 의지하고. 공동체와 청년문제가 맞진 모르겠지만 소속이 있을 때 의지하고 식구같이 느끼는 심리적 연대가 생성되는 것과 개인에게 가고 빚으로 갚을 때는 또 다른 문제와 해결의 방식의 역할까지 개인에게 부담지는 방식이 된다. 그런 것이 오히려 아까 말했듯 잘 안됐을 때의 문제. 개인의 빚을 빙고로 했는데, 추심이 없다. 안부를 묻는 정도인데,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너무 연락이 안 되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 정도. 개인의 부담은 털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회피나 연을 끊으려고. 여기서는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여기에서의 연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자본을 묶여 있지만 그런 것들까지 끊어지게 되는 문제들. 생활이 어려워져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한다.

금융을 통한 조직은 대부분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런 경우는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반환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이고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안 됐을 때 신뢰관계 문제여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기 쉽다. 그러다보면 자금이 소진되어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등한 관계. 이용활동가, 운영활동가와 같이. 주체를 섞어야 한다고 해서 출자 이용 연대 운영의 활동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게 입장. 이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도 채권자와 채무자로 된다. 현실을 좋은 말로 넘기는 게 아니다.

전체 조합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출자가 더 필요할 때가 있고 이용이 필요할 때가 있다.

상임활동가라고 반드시 조합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활동가는 2명. 상근은 아니다. 상시적으로 조합원과 소통하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 회비나 지원받는 게 있진 않아서 시스템 안에서 운영이 된다. 배분을 해보면 이 자산 규모로는 한계가 있고 일이 많지는 않다. 소통하는 게 일이다.

Q. 공동체를 조직하는 과정이 있었나?

없다. 회의가 있고 뉴스레터를 내고 재정 정산하는 정도의 일에 활동비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하고싶은 만큼 한다. 출자활동이 어렵게 아니라 계좌이체만 하면 되니까. 연대활동은 조합원이 연대하고 싶다면 하는 거고. 기업이나 조직이 움직이려면 다 돈을 주고 해야 하는 활동이 되지만 그렇게 하진 않는다. 딱 필요한 것만 하는 것. 나머지 적극적 활동을 할 여력은 없다.

주거 공동체에서 시작한 것의 장점이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이야기되고 그러면서 빈고가 같이 자연스럽게 성장했다. 맨날 싸웠다. 흥성에 빈 땅 조합이 있다. 토지 공유지를 관리하기 위한. 땅을 알아보다가 구하게 됐다. 같이 사는 집을 짓는 주택조합이 있다.

빈 땅은 공유지를 소유권. 빈고는 법적인 체제가 없다. 땅은 계속 전세 월세를 돌다 보니 해방촌에 근거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다.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공유지를 만드는 조합을 만드는 활동. 모여 살 수 있는 방식.

Q. 내공이 대단하다는 생각. 종교적 신념으로 공동체를 꾸리고 사는데. 너무 비장한 나머지 여러 실험을 했었다.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방식. 나는 소유권을 포기하고 저 사람에게 주는 형태의 모임이 가능한데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이 없어지진 않는다. 공동체가 소유하는 건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어려워졌을 땐 남는 건 공동체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빈고의 방식은 돈을 모으긴 하지만 잠정적 상태로 둔다.

이용은 같이 하되, 모으는 것은 그렇게 한다. 계속 잘 되어서 끝까지 회수 안하고 죽으면 성공한 것. 빙고를 이야기하면서 주거 공동체들만의 공동체, 개인들의 공동체 개념이 많이 달라졌는데

건강계가 있다. 빙고 조합원 내에 건강계가 있는데, 조합원 중에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주거공동체에 살지 않는 이들도 있는데. 서로를 케어해 주자는 목적이었는데 계속 커졌다. 보험이다. 달에 만원을 내고 아플 때 신청하면 급여 내에서는 백프로, 비급여는 60프로를 준다. 서로 누가 아프다고 하면 들여다보고 공동체 내에서 같이 살면 아플 때 실제로 들여다보지만 공동체의 개념이 나는 집에 혼자 있지만 속해있을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엮이는 것도 공동체로 봐야 한다. 건강계가 서로를 봐주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

빙고는 제안을 한다. 실손을 들었으면 실손에서도 받고 빙고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중복은 모른다. 조합원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상호부조가 가능한 것.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심의하고 아파서 어떻겠냐고 묻는 게 아니라 진짜 아팠냐고 묻는거라면 팬찮냐고 하는 방향. 들여다보는 방식이 여기서 적대적이라면 돌봄이라는 단어와 맞진 않지만 서로를 봐주는 것들. 객체로 고립되어 있지 않게끔 하는 것.

Q. 규정이나 규약?

빙고는 규약이 없다. 규약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서 공부하고 만드는 팀이 있다. 규약 없음이 빙고를 유지하는 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정관이 없음으로써 더 고민하고 토론하고 싸움도 하는 것들이 편리하자고 정관을 만드는데 싸움이 있더라도 유지하고 좋게 풀려는 방식이라고 본다. 없음으로써 갖는 장점이 더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자본이란 저축을 반대하고 투자를 반대하자고 하지만 되게 어렵다. 내가 전셋집에 산다고 하면 1억짜리 전셋집에 산다. 못해도 월세로 치면 50만원~100만원이 될 거고 그 자기가 전세금을 넣어놓은 돈이 그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건데 이 것 없이 살 수 있냐.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는 것. 다 혼자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도 있고 직접 챙기는 사람도 있으면 원칙에 벗어나는 활동이나 행동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동의하지 않게 되는 것만 아니면 나머지 관행 오류 일탈은 서로 조금씩 줄여나가자고 할 수 밖에 없다. 너무 기대하면 어려울 수 있다. 모두가 신뢰관계로 원칙대로 착착착 움직이면 무이자은행 해도 된다. 내부 잉여를 하나도 안 남기고 유기적으로 운영해도 되는데 이 때의 문제는 이탈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다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한다. 보통 자본에 반대한다거나 이자에 반대한다고 하면 무이자은행을 생각한다. 좋은 관계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과도한 기대가 있다는 생각.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청빛넷 구조..)

잠재적 배당을 이야기했지만 빙고 자체적으로 적립금을 모으기도 한다. 그게 없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의 손실은 당연히 예상을 하지 않으면 대응이 안 된다.

우리가 만든 조직에서 대출받았다가 반환을 못하면 진짜 나쁜 사람으로 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것. 반대 경우도 많을 수 있다. 훨씬 많이 출자할 수 있는데 덜 하거나 상당히 많은 부분은 편의를 누리는데 안하는 건 더 큰 일탈이 아닌가. 이건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런 한계들을 갖고 있는 것. 이 한계들은 원칙에 동의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조금씩 수정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이용하고 반환이 안 되는 정도의 문제는 잘 돼서 갚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 못 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립금에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면 그냥 가는 것.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건 보증금 정도. 그런 것들은 공동으로 계속 상황을 공유하면서 가야 한다. 문제 생긴 적이 한번 도 없었던 것 같다. 잘 운영이 안 되서 분담금을 못 내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힘든 일이 아니니까. 이자와 분담금은 좀 다르다. 분담금은 자본수익 정도를 공유하자고 계획을 잡는 건데 안 되면 쫓아가서 받겠어요. 추심은 없다. 개인에게 그런 손해가 발생한다면 얘기를 할 때 적정선에서 이용금액이 정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로 흔들리는 경우는 잘 없었다. 활동가의 신뢰관계가 깨진다거나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이 될 수도 있지만 계획 자체가 잘못 된 것. 이용활동이라는 계획 자체가 잘 못된 것. 안되면 계획의 실패인 거고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거랑 똑같은 사업을 또 하겠다고 하면 그때 발생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환이 안되는 게 눈에 선해도 진행이 맞다고 내부에서 생각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다.

다 합의하고 가려고 하면 실제로 될 수 있는 게 없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가?

처음에는 생각과 의식,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움직인 게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단히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다. 공동체 내부 구성원같은 경우에도 집에 싸고 그러니 와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딱히 다를 것도 없다. 다른 방식, 시행착오로 성장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훨씬 자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혹시 연구자들이 약간 논문이나 하고 싶다고 제안한 적은?

빈집은 논문이 몇 개 있다. 빈고만 가지고 한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빈고가 딱 주제는 아니다. 잘 쓸 사람이 있기는 한데, 여행자들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빈집에 대한 글 쓴 사람.

커먼즈 주제로 하면 저희는 금융커먼즈다. 커먼즈가 만들어지는 방법을 사실 잘 모르겠다. 공유지가 공유지를 만드는 방식이 뭐가 있겠나. 다 사유화돼있는 상황에서 공유지를 만드는 방식은 사실 그렇다. 사유지를 공유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단지 거기 산다고 사유지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다. 공유지에 동의하는 사람이 산다고 해서 그 땅이 공유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땅을 공유하고 운영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매입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모을 수밖에 없다. 돈 모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모으는 그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공유지면 보통 공동체의 소유거나 국가의 소유이거나 개인의 땅이거나 해서 방치된 경우이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다 애매하다. 계속 유지되고 확장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자본주의가 있는 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확보한 소유권을 어떻게 운영할거냐에서 합의가 필요하다. 빈고의 방식은 내가 소유한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다른 공동체에 준다고 해서 소유권의 문제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면 내 소유인 것은 분명하지만 잠정적으로 묶어놓고 공유와 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자산으로 땅을 매입을 하던 해서 운영하는 것.

정남영 선생님의 글과 비슷하다. 방식 자체가 자유롭고 싶은 사람들이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결국에는 커먼즈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의 또 하나의 진화과정이라는 시선이 있듯이 커먼즈도 똑같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글에서도 그렇게 균열을 내는 방식에서의 전환.

다같이 출자해서 어떻게 공유할지 이야기하자라는 것 같다. 오히려 소유권의 문제는 잘 통제해서 아무도 못 팔게만 운영하면 될 것 같다. 거기서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고 어떻게 수익을 처리할지를 논의하는 게 중요.

대구에도 조합원이 있다. 그린집. 같이 빈고를 만드는 공동체이다. 올해도 다녀왔음. 지금 고민 : 조합원 수는 적지만 지역 단위로 가야하지 않을까. 지역에는 누가 공동체 소속이냐 아니냐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다. 내년 총회때 논의 예정. 지역별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는 방식. 그린집은 그 자체 내의 시스템이 있다. 자체출자도 가능, 빈고의 자금 사용도 가능. 돈이 필요한 곳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실제 공동체들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구 지역도 비슷한 시도를 한다면 빈고와 함께할 수도 있겠다. 조합원 가입 추천!!

Q : 서울 박원순 시장 정책, 영국에서 수입해온 정책, 타 지역에서도 서울에선 성과가 났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서울을 벤치마킹. 사실은 시끄럽다. 갑론을박 있음. 거리 두는 쪽도 있고, 활용하는 쪽도 있고, 이윤추구의 과정으로 이용하는 쪽도 있다.

마을사업 : 자생적으로 운동하시던 분들이 관료화됨. 급여로 인해 움직임이 형태를 갖춘 다음부터는 시가 성과로 먹어버린다. 보통의 마을사업, 청년지원의 가시화 방식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 연구자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활동가의 시선에서 보아 적나라할 수도 있다. 관료화의 형태와 같은 정치적인 갈등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 있다.